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오전 KOCHAM 4월 AI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연준 선호 '근원 개인 물가지수' 3월에 빠른 상승
- Bloomberg: 인플레이 지표, 연준 고금리 지속 가능성 높여
- Bloomberg: 씨티는 금리 인하 예상하지만 금리 인하 예상 폭 줄여
- Bloomberg: 미 인플레이 기대 상승하면서 소비자 심리 하락

[미국 금융]

- Bloomberg: 물가 지표 발표 후 국채 가격 상승

[뉴욕시]

- Bloomberg: 뉴욕시 지하철,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60억 달러 사용한다

[주택]

- CNN Business: 3월 미 잠정 매매 주택 판매 급등

[에너지]

- WSJ: Exxon과 Chevron, 수익 감소

[기후]

- CNBC: 2024년 출생 미국인들, 기후변화로 거의 50만 불 지불할 수도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Whirlpool, 2천 달러짜리 에스프레소 메이커 출시
- Bloomberg: 토요타, 새로운 전기차에 14억불 투자
- WSJ: 중고차 판매의 온라인 전환, 고객과 딜러 만족감 상승

[미국 경제]

Bloomberg: Fed's Preferred Core Inflation Gauge Rose at Brisk Pace in M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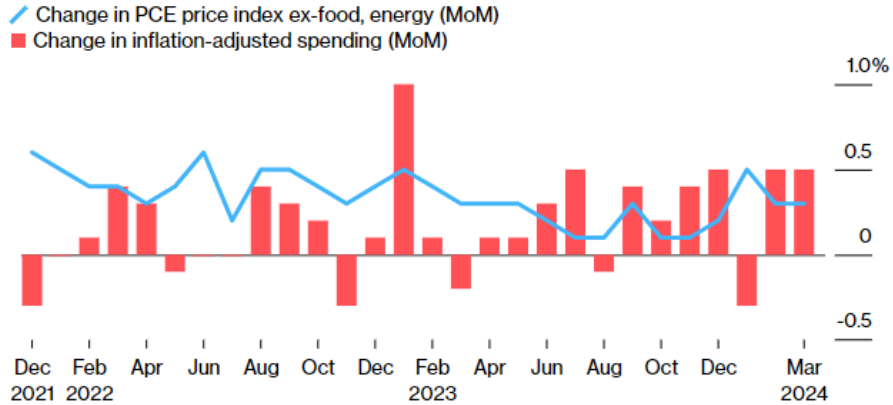
연준 선호 '근원 개인 물가지수' 3월에 빠른 상승

- 연준이 선호하는 미 인플레이 지수가 3월에 빠르게 성장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춰질 것이라는 가격 압박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변동성 많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른바 핵심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2월에 비해 0.3% 상승했고 작년 동월보다는 2.8% 상승한 것으로 오늘 금요일 발표됐다.
- 전체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PCE)는 전월에 비해 0.3%, 작년 동월 비교 2.7% 올랐다. 인플레이가 조정된 소비자 지출은 예상보다 큰 0.5%로 올해 가장 크게 늘었다.

- 사람을 찾는 구인 수요는 여전히 견조해 임금 상승에 기여했다. 2분기에 임금과 봉급은 0.7% 상승해 전반적인 근로자 소득은 0.5% 상승했다.

US Underlying Inflation Rose at Brisk Pace in March

Household outlays exceeded forecasts on outside spending in goods



Sou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loomberg 기사

Bloomberg: Inflation Data Reinforce Powell’s Shift Toward High for Longer

인플레 지표, 연준 고금리 지속 가능성 높여

- 오늘 발표된 강한 인플레 지표는 “당분간 고금리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지난주 말한 연준 파월 의장 메시지를 더 확인 시켜주고 있다.
- 연준이 선호하는 PCE 지표는 3월에 0.3% 상승, 작년 동월 비교 2.8% 상승했기 때문이다. 3개월 연속해 강한 인플레를 보이는 중이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고, 인하 횟수도 줄어들더니 이제는 올해 아예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Citi Trims Fed Bet for 2024, Still Sees 100 Basis Points of Cu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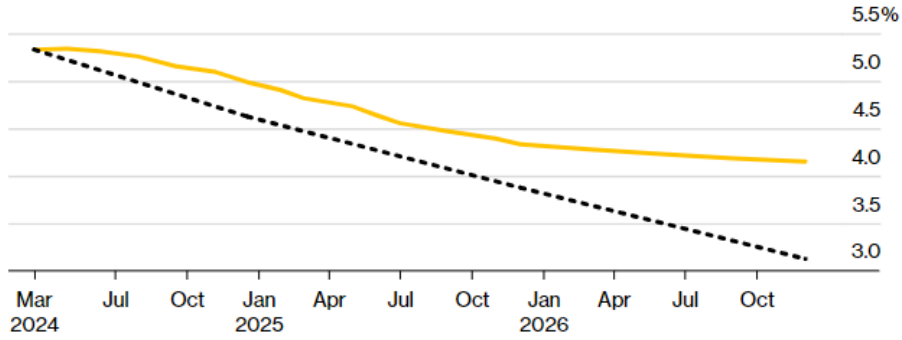
씨티는 금리 인하 예상하지만 금리 인하 예상 폭 줄여

- 씨티 그룹은 여전히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 즉, 연준이 6월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0.125% 내릴 것으로 발표했지만 현재는 인하 시기를 7월부터로 늦추고 인하폭도 0.1%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 반면에 다른 은행들의 경우 연준이 올해 하반기 전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도이치 뱅크는 올해 12월에 첫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Traders Price First Full Fed Rate Cut for December Meeting

Swaps show around 7bp of cuts for July meeting and 34bp by December

● Fed f/cast ● April 26



Source: Bloomberg
 Note: Change in Fed's interest-rate target implied by overnight index swaps and SOFR futures. Fed dots use interpolation.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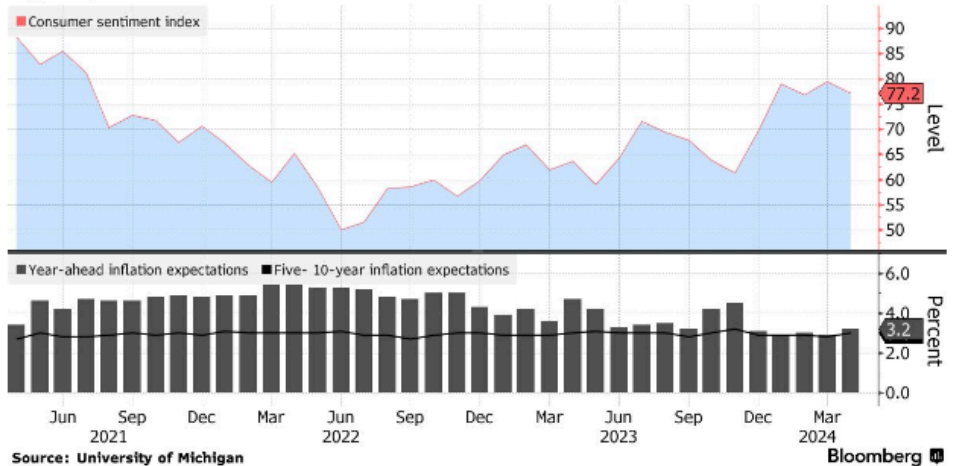
Bloomberg: US Consumer Sentiment Falls as Inflation Expectations Climb

미 인플레 기대 상승하면서 소비자 심리 하락

- 인플레 전망이 상승하여 미 소비자들의 4월 개인 재정 및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소비자 심리가 하락했다.
- 미시간 대학 4월 최종 관련 지표는 3월의 79.4에서 77.2로 떨어졌다. 소비자들은 내년에 물가가 연율로 3.2%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며 3월의 2.9% 예상치보다 높았다.
- 미 소비자들은 내년부터 향후 10년까지 물가가 3%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US Consumer Sentiment Falls as Inflation Expectations Pick Up

Higher prices continued to take a toll on sentiment in Apr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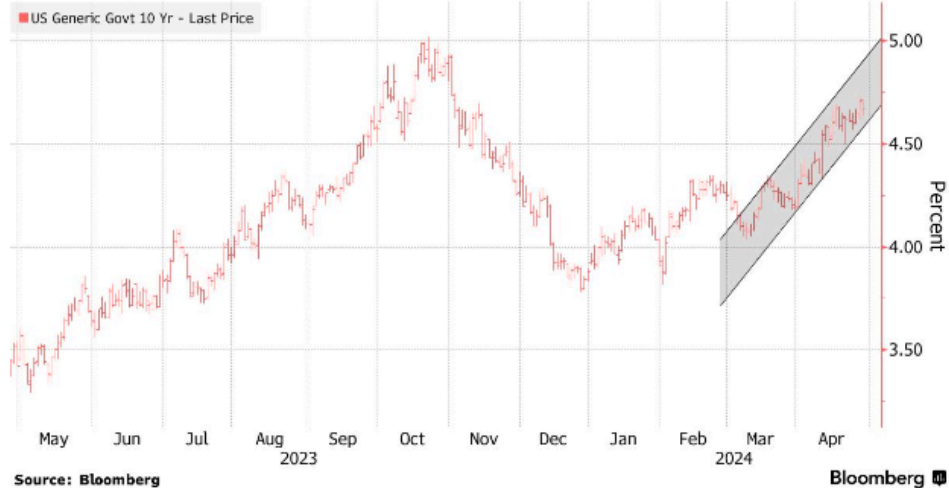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Treasuries Gain as Traders Find Relief in Key Inflation Readings**물가 지표 발표 후 국채 가격 상승**

- 오늘 발표된 물가 지표를 올해 연준이 최소 금리를 한차례는 낮출 것으로 간주되면서, 국채 수익률이 최소 2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했다.
- 연준 금리에 가장 민감한 2년물 국채의 경우 5% 아래로 내려갔다. 10년물의 경우 4 베이시스 포인트 낮은 4.66%를 기록했다.

Treasury Yields in Rising Trend

Bloomberg 기사

[뉴욕시]

Bloomberg: New York City Needs \$6 Billion to Protect Subway System in Harsh Weather**뉴욕시 지하철,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60억 달러 사용한다**

- 뉴욕시가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해 향후 몇 년간 6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지하철역 및 통근 노선 간의 라인을 더 탄력적으로 만들어 기상이변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MTA 관계자는 역과 선로 침수를 예방하고, 기온 상승으로부터 교통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MTA의 CEO Janno Lieber는 “뉴욕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은 공기나 물과 같으며,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기후 변화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주택]**CNN Business: US pending home sales jumped in March, beating expectations by a mile****3월 미 잠정 매매 주택 판매 급등**

- 계약 중인 3월 미 주택 잠정 주택 판매가 지난달 모기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급등했다. 모기지율은 Freddie Mac에 따르면 이번 주에 상승했는데 지난 5개월 동안중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계약 중인 미 주택 매매 건수는 3월에 3.4% 상승했다고 전국부동산협회는 목요일 밝혔다. 한마디로 최고의 매매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

CNN Business 기사

[에너지]**WSJ: Exxon and Chevron Earnings Fall Back to Earth****Exxon과 Chevron, 수익 감소**

- 엑손 모빌과 셰브론의 1분기 수익이 감소했다. 두 기업의 기록적인 실적이 주춤세를 보이다가, 천연가스 가격 및 정제마진이 하락하여 실적이 악화된 것.
- 금요일 엑손 모빌은 석유 정제마진과 천연가스 가격이 팬데믹 이후의 최고치에서 하락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28% 감소한 82억 달러의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FactSet에 따르면, 엑손 모빌의 실적은 월가 예상치를 6% 하회하는 수치이다.
- 셰브론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약 16% 감소한 55억 달러의 실적을 발표했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약 2% 상회하는 수치이다.
- 지난 2년간 양사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힘입어 기록적인 수익 및 주주 배당을 기록하며 전례 없는 수익성 호황기를 누려온 바 있다.

WSJ 기사

[기후]**CNBC: Climate change could cost Americans born in 2024 nearly \$500,000 in their lifetime****2024년 출생 미국인들, 기후변화로 거의 50만 불 지불할 수도**

- 연방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의 기상 및 기후 재해로 인한 비용은 6천1백70억 달러가 넘는다. 이는 기록적인 수치이다. 10월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13%가 기후 변화로 인해 전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 및 지속된 기상이변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경제적 고통을 받게 될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 제5차 국가 기후 평가는 지구 온도가 1°C씩 증가할 때마다, 미국이 더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 경고했다. 예를 들어, 지구 기온이 2°C 상승하면 1°C 상승했을 때에 비해 경제적 타격이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컨설팅 기업 ICF가 최근 작성한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 2024년에 출생한 미국인들은 세금 인상, 주택 및 식량 가격 상승 등의 여러 요인으로 평생 50만 달러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Whirlpool, Struggling to Sell Large Appliances, Bets on \$2,000 Espresso Maker**Whirlpool, 2천 달러짜리 에스프레소 메이커 출시**

- 월풀이 대형 가전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기업은 고급 에스프레소 머신 출시를 통해 상황을 극복하려는 모습이다.
- 이번 달 월풀은 2천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KitchenAid' 자동 에스프레소 메이커를 출시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고객들을 타겟팅해 제작된 상품이다.
- 현재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위 전략은 월풀에게도 고액의 도박이다.
-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Drew Reading은 소형 가전제품은 여전히 판매되고 있지만, 고급 가전제품은 여전히 약세라고 설명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oyota Is Investing \$1.4 Billion to Build Another All-Electric SUV in US**토요타, 새로운 전기차에 14억불 투자**

- 토요타 자동차가 인디애나주 공장에 14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에서 더 많은 전기 자동차를 제조 및 판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기업은 인디애나주 프린스턴 공장의 라인에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세 칸짜리 열 전기 SUV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공장에서는 현재 4개의 가솔린 및 하이브리드 모델이 생산되고 있다.
- 이에 앞서 토요타는 지난 2월, 켄터키에 위치한 공장에 13억 달러를 투자해 별도의 3열 완전 전기 SUV를 생산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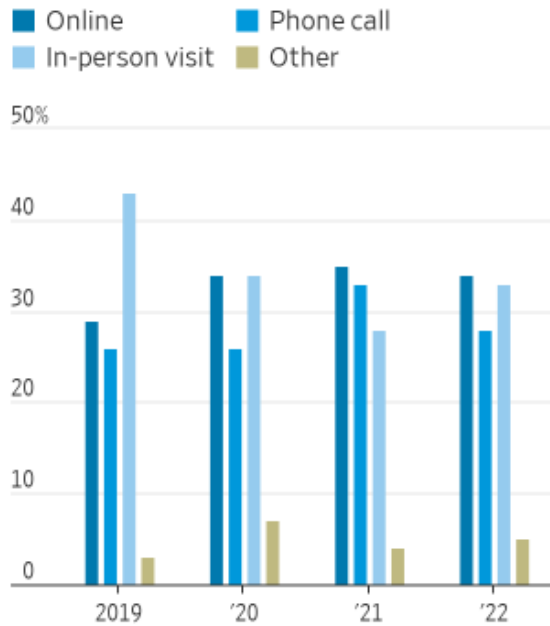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WSJ: Used-Car Sales Have Moved Online—Here’s Why Both Customers and Dealers Are Happy

중고차 판매의 온라인 전환, 고객과 딜러 만족감 상승

- 온라인 전용 자동차 판매업체 Carvana 는 팬데믹으로 주목받은 기업 중 하나이다. 이처럼 팬데믹으로 온라인에서 중고차를 검색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중고차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줄어들고 있다.
- McKinsey에 따르면 중고차 검색의 95% 이상이 온라인에서 시작되며, 소비자의 70% 이상이 중고차 가격 비교에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소비자는 가격뿐만 아니라, 특정 차량 모델의 현지 판매량 및 출시일, 그리고 딜러에 대한 리뷰도 조회할 수 있다.
- 온라인 판매가 딜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딜러가 수익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딜러는 실시간 시장 데이터를 활용해 경매에서 최적의 입찰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해 입찰할 경우에 딜러가 마진을 2%p까지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이, McKinsey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How consumers first connected with dealers



Source: CarGurus

WSJ 기사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